

구약의 율법 조세 십일조 왜 안하는가? 신약 시대 헌금의 원리

고후9:6-7

우리는 2008년 5월에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제 18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성경의 거의 모든 교리를 가르쳤고 중요한 책들은 절마다 다 강해하였다.

헌금의 원리는 성경의 모든 중요 교리 중 하나이지만 두세 번 정도 설교한 것으로 생각된다.

헌금의 원리: 십일조와 헌금 영상(14년 전 게시)은 150만 회 뷰

설교한 것 중 가장 높은 시청 회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새로운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생김, 그래서 오늘 < >, 아이들, 청년들, 성도들, 외부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가?”, 전통, 목사, 교회, 교단의 주장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함

지금 한국 교회에는 수십 가지 헌금 종류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어 한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들, 목사의 비리 타락, 교회의 거룩함 훼손, 그리고 수많은 헌금

과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을 하라고 하였을까? 답은 당연히 아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헌금이 불필요한가? 아니다! 헌금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잘라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게 하는 것, 심히 중요한 예배 행위

그러나 이 중요함을 빌미로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 교회 재정으로 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 무지한 교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것

과거 성당 건축, 교회 재산 축적, 지금도 성전 건축, 교회 재산 축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신자들은 신약 시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며

믿음 생활 해야 한다.

십일조

십일조는 헌금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성도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다.

교회마다 십일조 봉투, 도장도 찍어 주고 개인 헌금 봉투 슬롯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십일조를 거둔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십일조(Tithe, 십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십일조의 정의: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거룩한 용도로 드리는 것(창14:20; 28:22).

A. 구약시대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모세의 율법은 총 세 종류의 십일조를 이스라엘에게 부과하였다.

이것은 내가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에서 배운 것이다.

그는 그런 책을 썼고 1975년부터 강해해 왔다. (*), (*)

I. 첫째 십일조는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등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레27:30-32). 이것은 신정국가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고(민18:21-24) 또 왕의 통치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으며(삼상8:15, 17)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가의 오분의 일을 더해서 돈으로 이 세금을 낼 수 있었다(레27:31).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바쳤고(민18:26-28) 이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10.0%

II. 둘째 십일조는 신12:17-19; 14:22-27에 나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즐겁게 먹어야 했고 거리가 멀면 물건으로 바꾸어서 가져가기도 하였다. 또 이대에 레위 사람들도 기억해야 했다(14:27). 이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와서 먹어야 했으므로 이것은 예배의 일환이었다. 10.0%

III. 셋째 십일조는 신14:28-29에 나오는데 이것은 3년 마다 레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십분의 일을 내는 것이었다. 3.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 하에서 매해 평균적으로 수입의 23.3%를 주님께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정 정치이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부과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이런 십일조 제도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에 갱신되었다.

히스기야 시대: 대하31:5-6, 12

느헤미야 시대: 느10:37-39; 12:44; 13:5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느13:10)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았다(말3:8-12).

말3:10 (*)

강제입스: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개역/개정: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십일조(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십일조)지 온전한 십일조(질적으로 완전 No)가 아니다.

검증이지 시험이 아니다. 검증: 진실을 확인하고 입증한다는 것, 시험(출17:2 신6:16) 등: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정적 맥락에서 쓰이는 말

IV. 구약의 끝 부분에 이르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조그만 것의 십일조를 드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십일조의 원리 즉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시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마 23:23).

많은 사람들의 주장: 예수님이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였으니 바쳐야 한다.

신약과 구약 설명, 예수님 태어난 시점에 신약의 시작이 아니다.

New Testament: 상속 언약,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수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갈4:4, 롬15:8-9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은 구약 시대: 대상 유대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

마23:37-39, 교회 시대 개막 예고

십자가 죽음 이후 신약 시대를 여심 (*)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전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다. 마16:18

마23:23도 당연히 구약 시대 종교인들, 그들은 모든 십일조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의무로, 강제 조세이니 했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V. 이 외에 구약에는

1. 율법 시대 이전에 창14:20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바침.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헌금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7:6-7, 더 높은 자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삼상8:15, 17)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건을 언급한 목적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십일조 의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창28:22에서 야곱이 벧엘에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함.

이것 역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시한 것이며 조건부 서원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이라는 조건 아래 드린 약속이므로, 정기적·의무적 헌금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매주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왜곡

3. 이 두 사례를 이용해서 구약 율법 수여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십일조를 드렸으니 신약 시대에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오남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B. 신약시대

신정 정치 하에서 운영되던 율법의 십일조는 신약의 도래와 함께 분명히 사라졌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서 십일조는 단 한 군데 즉 히7:4-10에만 나온다. 여기서는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것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 월등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을 언급함(레위도 드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십일조를 바쳐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도행전 15장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힘(15:1), 바리새인들 15:5

바울과 바나바 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베드로 등과 회의를 함

베드로의 말: 15:10, 율법의 모든 규례, 자기들도 지기 힘든 것이다.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다 주장 자체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말함

이날의 결정, 15:19-20, 28-29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실제로 선포한 결정

네 가지 금지 사항(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부과했는데 이 네 가지는 레위기 17-18장의 이방인 거주자 규례와 연결되어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에서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용적 지침이었다.

즉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포함하여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구약 신정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십일조(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는 불필요함

그래서 구약의 강제 조세 십일조는 신약 시대에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말라기, 마태복음, 창세기를 인용하며 십일조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구약 시대,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 십일조 안 하면 저주받은 자

그러나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C. 헌금의 원리

여기까지만 듣고는 오판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헌금은 안 해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아니다. 헌금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구약 시대 왜 십일조 등 헌금/헌물이 필요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건물, 제사장, 레위 사람, 희생 헌물 등이 있어야 했다.

모두가 할 수 없으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전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를 먹여 살리고 필요한 경비를 대야 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로 섬긴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 보상을 받는 일

따라서 헌금의 정신과 원리 즉 복음의 사역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는 유기체(organism)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organization)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일꾼(복음 전파 사역자)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다(마10:9-14; 눅10:4-8, 16). 사도 바울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전9:11-15; 갈6:6). 그는 성도들을 위한 기부 헌금으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각 사람이 수입에 비례하게 주의 첫 날에 즉 주일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였다(고전16:2).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일은 비성경적이며 크리스천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을 유지해야 한다(고후9:6-7).

그러니까 구약 식으로 강제 조세 형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다.

D. 십일조는 그림자이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히10:1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 가지고 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과 교회, 제사장과 사역자, 성전과 교회, 레위의 십일조와 자발적 헌금 신약성경에 수입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약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므로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과 약속: 제8조 1항 헌금

본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된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헌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으며 동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십일조 곧 수입의 십분의 일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헌금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고후8:5)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적인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마6:21; 고전16:1-2; 고후8:1-5, 9:1-15; 히7:1-17).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 헌금의 경우에는 목사나 집사회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 역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떼서 십일조로 드리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율법의 십일조로, 강제 규정으로 세금을 걷듯 걷는 것은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고후9:6-7; 갈6:7)와 배치되므로 경계해야 한다.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의 두 부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맹신으로,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십일조를 안 하는 성도들의 두 부류: 방종에 빠진다. 거의 헌금을 드리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한다. 안 된다.

실제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사실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교회 사역을 위해 쓰인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공간, 교육 공간 건축 유지, 식사, 커피, 선교비, 교회 목사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 쓰인다.

그러므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명, 무기명

십일조라고 써서 드려야 하는가? 감사헌금으로 하는가?

교회 헌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우리 교회는 봉투가 하나이다. 원하는 대로 기명 무기명, 현금 종류 마음대로 써서 드러라. 예배마다 드러야 하는가?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드러나. 현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의 현금 통에 드러나.

예배 때마다 쪼개서 드러나 한 번에 드러나 다 동일하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드러나.

현금 액수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도 풍성하게 교회가 유지된다.

매해 3-5억원 미디어 선교 자금, 무료로 다 나누어 준다. 성도들에게도 다 준다.

식사, 음료까지 전부 다 무료

교회 역시 작은 정부를 구성해서 쓸데 없는 인건비를 줄인다.

교인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지난 18년 동안 이 원칙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약 시대 현금의 원리이다.

E. 결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마6:19-21).

1. 현금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 고백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통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2.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면,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훈련시킨다. 돈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나면, 그 일에 관심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따라간다.
3.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현금의 원리이고 예배 행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한다.